

# 국내 최대 콘텐츠전시회 ‘광주에이스페어’ 열린다

광주시, 26~29일 DJ센터서 개최  
하이프 등 국내외 400개사 참가  
세계전시연맹·전시산업협회 인증  
수출상담회·체험프로그램 등 다채

첨단영상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확장현실(XR) 등 세계를 사로잡은 한류 대명사인 문화콘텐츠산업을 망라한 콘텐츠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문화콘텐츠 종합전시회인 ‘2024 광주에이스페어(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 in Gwangju)’를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2024 광주에이스페어’는 콘텐츠 관련 전시행사 중 유일하게 세계전시연맹(UFI), 한국전시산업협회의 인증을 획득한 국내 최대 문화콘텐츠 전시회다.

‘IP의 변주와 다양한 콘텐츠의 탄생(Seeding IP, Digging Content)’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광주디자인진흥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관한다.

특히 올해는 세계 30개국에서 400개 기업(국내 359, 해외 41)이 503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HYBE)는 방탄소년단, 세븐틴, 투모로 바이투게더 등 소속 K팝 아티스트의 콘서트,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해외 바이어에게 선보인다. 또 국내 대표 방송기업인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CJ ENM이 참가한다.

해외기업으로는 대만 타이베이멀티미디어제작협회(TMPA), 인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술위원회(MESC), TVAGA, 홍콩의 치어스미디어컴퍼니(Cheers Media Company), 브라질 시

리엘라프로덕션(Seriella Productions) 등 세계 방송·애니메이션·캐릭터 기업들이 참가해 바이어들에게 콘텐츠를 소개하고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

광주지역 기업으로는 디자인숨, 스튜디오 오버튼, 핑고엔터테인먼트, 아이스크림 스튜디오 등 38개사가 캐릭터·애니메이션 부스를 운영한다. GIST(광주과학기술원)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프랑스 대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다쏘시스템과 공동부스를 설치해 인공지능(AI) 기반 가상화 기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선보인다.

올해는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국내외 30개국에서 해외바이어 190여명이 광주를 찾는다.

광주시는 지역기업들이 개발한 콘텐츠의 글로벌 상품성을 확인하고 유망상품을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수출상담회를 지원한다.

특히 중국의 CCTV 애니메이션(Animation), 망고 티브이(Mango TV), 텐

센트 비디오(Tencent Video), 브라질 TV방송사 글로보(Globo) 인터내셔널, 멕시코 텔레비전 메트로폴리타나(Metropolitana-Canal 22) 등 아시아권과 중남미권의 빅바이어 16개사가 참여한다. 여기에 참여기업이 요청한 바이어 초청도 이뤄져 에이스페어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수출상담회’(26~27일), ‘2024 광주 콘텐츠 투자유치 IR(26~27일)’, ‘한·중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교류회(27일)’, 투자진흥지구 팸투어(25일) 등이 잇따라 열려 지역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관광공사와 코트라(KOTRA)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수출상담회에서는 26개국 87개사(국내 63개사, 해외 24개사)가 참가해 900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의 재미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지역 대표 게임기업인 지니소프트는 자체 제작한 게임 ‘더스트더비’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더스티더비는 최대 32인이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멀티게임으로, 행사장에서는 최대 15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이스포츠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광주시 가을축제 통합브랜드 ‘G-페스타’의 하나인 ‘비어페스트 광주’, ‘광주 사운드파크페스티벌’, ‘랏츠폴로피’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열려 드로잉 쇼, 보드게임, 일러스트레이션, 코스프레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만끽할 수 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올해 광주에이스페어는 최근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동향과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공유하고 관련 기업·기관 간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광주에이스페어가 광주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콘텐츠 축제로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광주시, 반려동물 페스티벌 ‘광주 펫크닉’ 개최

내달 5일 DJ센터 야외광장서  
체험존 등 운영 ‘광주펫쇼’ 연계

광주시는 오는 10월5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2024 광주 펫크닉(pet+picnic)’ 행사를 개최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즐거움과 배움의 펫 페스티벌’을 주제로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교감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이며, 반려동물 산업전시회 ‘광주펫쇼(10월4~6일)’와 연계해 진행한다.

행사는 반려동물과 동반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 반려동물 무료 건강검진, 반려동물 관련 학과 홍보, 시민참여 사진전 등 총 6개 부스로 구성됐다.

반려동물 체험존은 견주와 반려견의 교감 및 사회성을 높이는 행사인 △놀아보개(전문 훈련사와 함께 하는 훈련시범, 어질리티 체험) △기다릴개(견주와 일정 거리를 두고 규정시간 이상 참기) △가져올개(장애물을 넘어 빠르게 목표물을 물고 돌아오기) △달려갈개(견주와 반려견 사이 장애물을 두고 견주에게 빨리 달려오기)로 구성됐으며,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알아보개’ 부스에서는 전남대 수의과대학의 무료 건강검진을 한다. 광주

자연과학고반려동물과, 호남대반려동물산업학과의 홍보 부스를 만나볼 수 있다. 광주캣맘협회는 동물보호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진전을 진행하는 ‘누가누가답았개’ 부스는 견주와 반려동물이 함께 한 결정적 순간, 표정, 몸짓 등 서로 닮은 사진을 전시한다.

사진전 참가자 1명당 1개의 사진을 오는 26일까지 사전 접수받아 행사장에서 현장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수상자에게는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사진전 참여는 네이버폼([https://form.naver.com/response/U1L\\_JXFJKQCRNe6-LxF0cw](https://form.naver.com/response/U1L_JXFJKQCRNe6-LxF0cw))을 통해 26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광주관광공사(062-611-2162)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전문훈련사와 훈련견의 어질리티 시범, 프리스비(원반) 프리스타일 쇼, 훈련견 복종시범, 사자탈춤·민요·판소리 등 국악공연도 펼쳐진다.

광주시는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광주 펫크닉’ 행사와 더불어 맥주행사가 스파크(9월25일~10월27일), 푸드트럭, 플리마켓 등 다양한 먹거리·볼거리·놀거리를 즐길 수 있어 가을날 반려동물과 추억할 수 있는 즐거운 소풍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병하 기자



재경남호남향우회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3일 도청 접견실에서 재경남호남향우회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받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전북·송어 활용 어묵산업 활성화 도모

목포 가공공장 입주기업 모집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화”

전남도가 최근 성장추세인 어묵 시장 개척을 위해 전북과 송어를 활용한 어묵 신메뉴 개발과 목포어묵 가공공장 설립 등 어묵산업 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내 어묵 시장은 2023년 6227억원 규모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의 약 73%가 부산과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남에서는 2개 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이는 0.3%에 불과한 만큼 지속적인 사업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는 전북, 송어 등 수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등을 위해 목포 대양산단에 총 100억원을 들여 어묵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지난 7월 착공한 이 공장은 올해 하반기 입주기업들을 모집·운영할 예정이다. 공장은 3개 입주기업에서 1일 최대 6톤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어묵 가공 공정과 어묵 제조 체험 등 관광가

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 어묵의 경우 지난 4월 전남도청 구내식당에서 시식회를 실시해 긍정적 효과를 얻은 이후 관련 기업에서 광주·전남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타 지역 학교에도 급식 공급을 위해 협의 중이다.

송어 어묵은 진도 해역의 송어와 전북, 톳, 대파 등을 활용해 진도 신기 어촌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협력해 고급 프리미엄 제품으로 개발해 지난 추석 명절부터 세트 상품을 출시했다.

오지현 기자

## 전남도,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점검

6개 시군 수련원 등 12개소 감찰

전남도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6주간 수련시설 관리실태 안전 감찰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청소년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개선하고, 운영자의 안전 무시 관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된다.

감찰 대상은 순천·곡성·장흥·영암·장성·진도 등 6개 시군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 12개소다.

전남도는 △운영자 자체 안전점검 및 수련시설 배상보험 가입 여부 △반복적 안전 위반 적발사항 조치 여부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시설물 안전관리 등 청소년수련시설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 감찰을 할 계획이다.

김미순 전남도안전정책과장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영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수련 활동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광주시 “최고 숙련기술인 ‘명장’ 찾습니다”

금형·자동차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서 5명 이내 선정

광주시는 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2024년 광주 명장’을 공개 모집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명장 모집 분야는 금형·자동차·공예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이며, 5명 이내로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특정 분야·직종에

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광주지역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인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3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 또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대한민국 명장 등에 선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인은 자치구청장, 기업체 대표, 업종별 협회장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시민의 견수령, 명장심의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12월께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은 숙련기술 보유 정도, 산업발전 기여도,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이다.

광주 명장으로 선정되면 증서와 인증현판과 함께 광주명장의 전당에 등재되며, 기술장려금 1000만원을 5년간 분할 지급받는다.

참여 희망자는 9월30일부터 10월11일 오후 6시까지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실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방법과 관련 서식은 광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